

작품 개요

이 곡은 작곡자가 26세 때인 1958년 찬송가에 실린 석진영(石鎭榮, 1926~2002) 여사의 가사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1958년 12월 18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제4회 나운영 작곡 발표회>에서 싱투게더 합창단, 지휘 나운영, 반주 권영숙에 의해 초연되었다.

작곡자의 해설

이 찬송에 있어서 첫째로 셋잇단음표의 리듬을 많이 썼으며, 둘째로 5음음계의 멜로디를 써서 동양적 정서를 나타내 보았으며, 셋째로 3도 화성을 주로 쓰면서도 3음을 떼어버리거나 부삼3화음을 많이 쓰거나 5도화성을 적당히 썼으며, 넷째로 베이스 성부에 대선율을 깔아 소프라노 성부와 베이스 성부만으로도 훌륭한 3부 합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았다.

이 찬송을 연주할 때에 첫째로 제13소절에서 숨을 쉬지 말고 제13, 14소절을 붙여서 불러야 하며, 둘째로 제14소절을 점점 느리게 부르고 3박을 점점 여리게 부르면서 길게 부를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제15소절 직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처음 속도대로 노래할 것 등을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찬송은 노래를 통한 기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곡보다는 - 내 마음 작은 갈릴리와 같이 - 정적인 곡이 찬송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찬송이 끝났을 때에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이 된다면 그 곡은 참된 교회음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라고 한 다니엘 해리스 (미국의 저명한 성악교수)의 말을 뜻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